

임실군-더불어민주당, 공조 본격화

예산·정책 간담회 갖고 민선 9기 핵심현안·국가예산 확보 본격 행보 나서

임실군은 지난 2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임실군-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실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한득수 임실군수, 정일운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군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주요현안 등의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이날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임실군 유치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35사단 체력단련장 신축 △임실군 가축분뇨(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등 8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정책과 국가계획,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국 이동장 자치행정연수원 건립은 전국 10만여명의 이동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유치,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실군은 지난 2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임실군-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략사업도 함께 건의하며 정부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이날 논의된 현안 사업들은 물론, 주요 공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임실 농업의 미래형 산업기반 전환 △사립이 모이고 머무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복지·교육·돌봄·문화가 생활권 안에서 연결되는 군민 체감형 정책 구현 △소통 중심의 군민 체감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임실군이 건의한 사업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부 정책과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과 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득수 군수는 "민선 9기 출범은 12

년 만에 군정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반드시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도·군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정책과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한득수 군수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생활속 불편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임실=진흥영 기자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중 운영

남원시보건소,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전국적인 폭염 특별 발령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협력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와 실시간 핫라인 운영을 통하여 온열질환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남원시 폭염 TF팀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온과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치명적인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는 총 48명의 보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폭염 대비 예방 물품(쿨도시)을 지원하는 등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집중 관리를 강화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확인하기 등이며, 특히 어르신, 야외 근로자,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순창군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복흥·쌍치·구림 농촌공간 혁신에 나섰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공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협약 대상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내빈 환영을 시작으로 △환영사 △경과 및 계획 보고 △우수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순창군은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복흥·쌍



치·구림 지역을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전국 제일의 상생자족형 농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을 밝히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복흥면에 문화어울림센터 건립과 시니어 야외공간 조성, 쌍치에 세대통합공간 조성 및 다목적 야외터마인드 및 진입보행로 개선, 구림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총 270억 규모의 굵직한 공간개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애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현지답사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이기열)는 지난 24일, 대신면 신계리 및 수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애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성토를 함에 있어 외부 토사 반입 대신 인근 토취장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현장에서의 듣고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단순히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 지형과 이동 거리 등을 눈으로 확인하며, 사업이 남



원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과 장마 및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피해가 없도록 수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고교생 진로탐색 대학탐방

순창군 출연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 순창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발효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효과학 동아리 고교생 진로탐색 대학탐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탐방에는 순창고와 제일고 발효과학 동아리 학생, 지도교사, 진흥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를 찾아 대학 교육환경과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대학 및 학과 소개를 통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대운동장과 본관, 글로벌라운지, 노천극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대학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이어 진행된 재학생들과의 진로·진학 멘토링에서는 학과 선택과 대학생활, 입시 준비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학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재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 활동 실시

남원시는 2026~20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전 한발 앞선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겨울철 반복되는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바이러스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 농장의 취약점을 미리 개선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이다.

추진 기간은 6~9월까지이며, 동절기 출입이 어려웠던 관내 가금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농장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조망 상태, CCTV, 전실·방역실 등 필수 구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특별방역기간 시작 전까지 완벽히 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난 신속 구호 네트워크 구축

남원시, 자연재해 대응 임시주거시설 정비·재해 구호물품 분산 비축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재민이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정비하고, 재해 구호물품(일시구호세트)을 권역별로 분산 비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대책은 41개 임시주거시설과 복지안전주택을 함께 활용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 및 안전을 도모하고, 4개 권역 구호물품 분산 비축으로 외곽지역 초동 대처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현장 밀착형 구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갑작스러운 재해나 주거 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언제든 바로 입주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내 41개소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4월)을 완료하여 상시 제공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

복지안전주택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대피가 필요한 가구에 1개월(필요시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동안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올해 초 2026년 남원시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점검 2회(3월, 4월)를 완료하며 빈틈없는 사전 대비 태세를 이어왔고, 현재 시는 급지면 소재 재해구호창고에 비축기준을 상회하는 응급구호 물품과 취사구호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남원시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4개 면(대강, 사매, 인월, 산내) 행정복지센터에 구호물자 현지 분산해 비축함으로써 외곽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지리적 제약 없이 즉각적인 긴급구호 물품 전달이 가능한 '연중 상시 신속 조달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양충모 시장은 "재난대응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주거시설 및 복지안전주택 운영과 권역별 구호물품 분산비축을 통해 이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신속한 현장 밀착형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